

사암련 회장에 들는다

“동서화합·생활불교 초석 놓아야죠”

광주사암련 회장 성호스님

“연내에 광주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착수해 호남불교 활성화 위한 토대를 갖추는 한편 광주 불교계가 환경·인권·동서화합 등 지역현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를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일 광주 무가사에서 제13대 광주불교사암련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성호스님(관음암 주지)은 “시대가 불교계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교의 위상을 높여겠다”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이와 함께 상반기에 광주시청불자회와 각 구청불자회를 창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불자협의회나 사찰 신도회 등 유명무실해진 재가조직을 추스리고 시민선방을 개원해 재가불교의 실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무등산 윤림온천개발 완전 백지화, 전남도청 이전반대운동 등 각 사암련 화합을 통해 지역 불교계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내달중 대구에서 대구불교사암련연합회와 함께 합동 생활법회를 개최해 오래된 지역감정을 불교계가 앞장서 풀어 나갈 계획이다.

99년 발족한 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서도 지역 인권·환경·여성·낙태문제에 공동대처하고, 올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광주지역대법회를 공동주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있다.

성호스님은 이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호남 불교계의 단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무가사 공원구역내에 광주불교회관을 건립, 지역 불교단체들의 실행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26년의 전통에 각 종단 소속 150개 등록 사찰을 확보한 사암련연합회지만 불교회관이 없어 불교 붐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대운사 선암사

시·구청 불자회 창립

실행거점 불교회관 건립

등 인근 5개 본사와 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기금 마련을 위해 선화(禪畫)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은 스님이 30여년간 직접 그린 달마도와 사군자 등이다.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및 신하 단체 활성화와 행사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호스님은 일반 시민에게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불교회관 리서 발간도 추진중이다.

“올 한해는 시민을 위한 불교, 시민을 위한 말씀”이란 주제로 회원 사찰들이 기존 불교 신도와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도록 하



겠다”는 성호 스님은 “대중포교를 위한 쉬운 불교 소책자를 발간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광주지역 불교세가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감정이 있는만큼, 스님과 지도교사들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 구체적인 새책포교 청사진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산 종교인 “낙태반대”

4개단체·시민등 ‘태사모’ 창립

성교육강좌·미혼모 쉼터 개설

부산지역 종교인들이 낙태의 비인간성에 경종을 울리고 낙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 천주교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규정), 원불교 부산교구 교의회(회장 이운조), 부산기독교 교회협의회(총무 김홍술) 등 4개 종교단체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이사장 김희로)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태사모’가 창립식을 갖고, “태아의 생명보호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그 부모의 권리를 초월한다”며, 낙태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모임은 종단 의료·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성·육·총무·홍보분과를 갖춘 사무

국을 설치하고 낙태방지 활동부터 낙태금지법 효력발휘 서명운동과 미혼모의 쉼터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낙태방지 활동에는 청소년 성교육과 자연피임법 강좌, 올바른 사랑관과 가정관을 위한 부부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단체는 낙태를 많이 시키는 병원을 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교계 언론계 등을 통해 낙태 및 제왕절개 방지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 압력단체로도 활동할 방침이다. 특히 사문화한 낙태금지법의 효력발휘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1004(천사후원단) 모임을 통한 모금으로 미혼모 쉼터도 운영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낙태 시술이 1년에 150만건이나 이루어져 세계적으로 ‘낙태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다. (051)469-5449.

김재경 기자

中 하이난섬에 한인 추모공원

납골당 낙성...1천여 징용희생자 위령

중국 하이난(海南)섬에 일제 징용 한국인을 추모하는 공원이 건립된다.

16일 중국측 최남단인 열대 하이난섬 남부 셴야(三亚)외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제(日帝)에 끌려가 집단 노역을 하다 숨진 한국인 징용자들이 안치될 납골당 낙성식 및 추모제가 스님 20명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직경 8m 높이 4m 크기의 납골당에 안치될 유골의 발굴은 10일부터 총북대 발굴팀이 맡는다.

납골당 인근 4백만평에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신우농장 대표 서재홍(63)씨는 1999년 9월 추모비를 건립한데 이어, 연말까지 7억원을

들어 3만평 규모의 추모공원과 전용 쉼터건설사업도 건립할 계획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정치범 등 1천2백50명이 ‘납골보급대’란 이름으로 섬에 끌려오는 때는 1943년. 이들은 일본군 군수물자를 위한 철광석의 채광과 철도도로 건설에 시달리다 굶어죽거나 일본 항복 직전 대부분 학살당했다고 현지 역사는 적고 있다.

당시 10여가구에 불과했던 원주민 여족(黎族)보다 숫자가 훨씬 많던 유골의 발굴은 10일부터 총북대 발굴팀이 맡는다.

김재경 기자



국가발전기원 법회

원주불교사암련연합회(회장 운봉스님)는 5일 원주 시청 무궁화홀에서 ‘국가와 지역발전·화합을 위한 원주 불교지도자 신년하례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주사암련 회장 운봉, 구룡사 주지 원행, 성불원 주지 현각, 극락암 주지 정선 스님과 한성철 원주시장, 합중한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안정선 원주시의회위원장, 김규철 원주경찰서장, 박현진 원주문화원장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산 통도사 뒷산 이름

‘영축산’으로 통일

‘영남의 알프스’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뒷산(해발 1,058m)이 앞으로 ‘영축산’으로 불리게 된다.

양산시는 9일 지명 위원회(위원장 안종길 양산시장을 열어 통도사 뒷산을 영축산으로 이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산은 그동안 영취산 취사산 영축산 등으로 불리면서 혼선을

빚어 이름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결정된 지명명도 지명위원회와 국립지리원 소속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6월중 최종 확정된다.

지명 심의 위원장인 안종길 시장은 “우리나라 삼보사찰중 하나인 통도사를 품고 있는 산의 이름이 통일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화합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재경 기자

불국사·석굴암 유물관 건립

200억 들여 다라니경등 국보급 문화재 전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성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의 역사유물관을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착공되는 불국사·석굴암 유물전시관의 총공사비는 약 105억원과 94억원으로 모두 200여억원이 소요되며, 자체예산 40% 정부예산 60%가 투입된다.

불국사 역사유물관은 연면적 551평에 건축면적은 351평,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지어진다. 석굴암 유물전시관은 연면적 537평에 건축면적 240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며,

모두 콘크리트 및 목조 구조를 혼합으로 건립된다.

전시유물은 불국사 복원공사 때 나온 일부유물과 현재 국립서울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국보급 유물들, 소장자들의 귀중품 등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석굴암은 본존을 비롯한 삼일면관세음보살 심대제자 사천왕상 등의 모형과 관련유물등을 전시하게 된다.

불국사는 관광객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적 설명이 가능한 박물관·영상자료실·세미나실도 갖출 예정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한라산 케이블카 철회“

제주범불교대책위 성명

“한라산케이블카설치반대 제주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광조·관음사부주지)는 5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제주 불교 승려들의 인식과 입장’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 범불교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한라산도 보호하고 관광과 제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전문가들의 종합적 연구와 검증은 거치지 않은 일방적 선전”이라며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존엄성 등 문화유산을 훼손할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Bamseon-gil Avatar Center' (밝은길 아바타 센터) featuring a testimonia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course on January 7-9th.

종단소식

천태종

2월 27일까지 동안거 총무원회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보름동안 신도들이 매년 정초에 하는 총북 단양의 구인사 참배를 실시한다. 또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스님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는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관음종

새해예산 36억 확정

제36차 정기 중앙총회가 10일 천안 보명사에서 개최돼 2001년도 종단 예산 36억8천5백만원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해 종단의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 활동 확대, 총무원사 복원불사 회향, 국제학술강연회, 대북교구 강화 및 지원 등을 확정했다.

대한법회종

신년 하례법회

신사년 새해 맞이 신년하례법회가 종정 김파스님, 총무원장 법흥스님, 포교원장 혜도스님과 각 부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 선광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김파스님은 “지혜가 있든 없든 죄는 벌하고 선은 남으니, 민든지 비방을 하든지 함께 부처의 도를 이루리라. 삼계의 화에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대적광명으로 모든 고통 여의고 즐거움을 이루리라”는 요지의 법어를 내렸다.

법륜종

일화스님 49재 20일 봉행

12월 3일 입적한 제2세 종정 해린당 일화대종사의 49재 법회가 20일 오전 11시 총남공주 금광동 원효사에서 봉행된다. (041)855-2839

총화종

사미(니) 23명 배출

구립 31일 수진사에서 월운·남정·각하 스님을 3중사로 건당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현오스님등 사미(니) 23명이 새로 배출됐다. 한편 총화종은 신사년 새해를 맞아 1일 자정 남양주시와 함께 수진사에서 범종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정 동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김영희 남양주시장, 김학배 남양주경찰서장 등 지역기관장, 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해 국가발전과 종단증흥을 기원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Ilshimbulwon' (일심불원)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map of the location in Seoul.